

##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2011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9월 15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1년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부 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을 연다.

#### ◆ 동 정

▶이완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협의회장은 지난 8월 1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업계의 당면문제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과 관련한 이사장협의회를 개최했다.

#### ◆ 부 음

▶김병석(은행계사) 한국잡지협회 전 회장이 지난 8월 5일 별세했다.  
▶양완식 대성사 대표가 지난 8월 20일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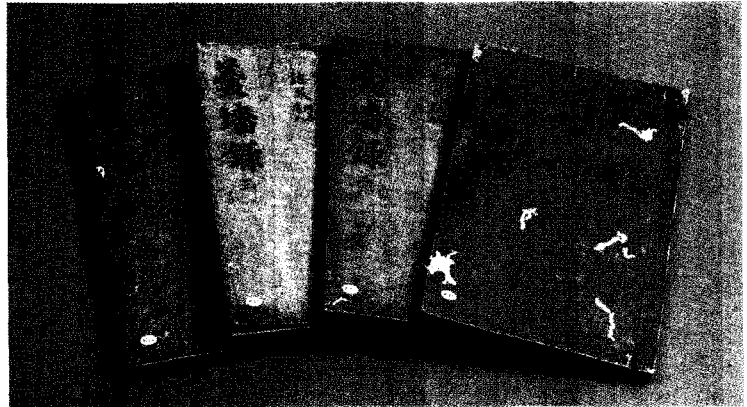
#### ◆ 화 속

▶장희운 상원인쇄 대표의 차녀 현재 양이 지난 8월 25일 리츠칼튼 서울에서 화족을 밝혔다.  
▶이기현 (주)현문 대표이사의 차남 수철군이 지난 8월 27일 뉴힐탑호텔 웨딩의전당에서 화족을 밝혔다  
▶갈영종 대양문화인쇄사 대표의 차남 해근 군이 오는 9월 3일 APM 컨벤시아 4층에서 화족을 밝힌다.

#### ▼ 대한인쇄문화협회, KT와 MOU체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주)KT(대표 이석채)는 지난 8월 16일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와 인쇄업계에 보다 나은 웹 저장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MOU체결을 맞아 KT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 및 관련업체에게 KT의 '유클라우드 오피스'를 기존요금에 비해 50% 할인된 가격인 월9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KT의 '유클라우드 오피스'는 서비스 용량을 기존의 20GB에서 50GB로 확대했으며, 앞선 기술력으로 파일공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파일 보기, 자동파일버전 관리 기능 등의 편의성을 제공해 편의성이 뛰어나다.

#### ▼ 국립문화재연구소, 예일대소장 문화재 보고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미국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Beinecke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Yale University)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전적류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수록한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8년부터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조사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현재까지 2만 2천여 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해 발간한 22권의 보고서 중 하나이다.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19세기 중반부터 비 유럽어 도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도서 수집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한국 고서들은 1915년부터 수집되기 시작했으며, 1934년에는 40여 건의 한국 도서들이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조사보고서에는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귀중본 전문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전적문화재 44건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수록했다. 수록 내용은 조선 태조로부터 영조까지의 21대 선왕들의 치적을 기술하고 있는 '강장록(羹牆錄)'을 비롯하여 '엄씨 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 - 필사본한글소설, '지도첩(地圖帖)' - 필사본 지도,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 불교경전, '경신록(敬信錄)' - 도교 교설, 탁본, 화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수록된 자료를 통해 조선 시대의 학문 세계와 출판 상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했으며, 내용을 CD로 제작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www.nrich.go.kr)에 원문을 공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 문화부,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가 지난 8월 2일 출범했다. 제2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14명 위원 중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이 재위촉되었으며(차미경·이은철·육근해 위원 재위촉),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신입 위원으로 교체되었다. 위원 임기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새로 출범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10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14명으로 총 24명이다. 지난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수립·심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 ▼ 한국포장기계협회, ProPak China서 한국관 운영



(사)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개최된 ProPak China 2011 전시회의 한국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ProPak China 2011 전시회는 중국내 최대 포장전시회로 전시면적 3만550㎡에 개별참가 330개사 그룹참가 79개사, 간접참가 163개사 등 총 572개사 참가해 지난 2010년 전시회에 보다 약 10% 신장한 규모로 개최됐다. 올해 ProPak China 2011 전시회에는 1만5944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이 중 해외 관람객은 2107명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지역의 바이어들도 다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포장기계협회와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관에는 SM PACK을 비롯해 (주)세진테크, 을성정공, (주)나우시스템, (주)가성팩, (주)자비스, 한국파렛트풀, 인디스어, KPMA, KOTRA 등 10개 회사가 총 14부스(126㎡) 규모로 참가했다.

ProPak China 전시회는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차기 전시회는 201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해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이전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점신문)는 지난 7월 21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3-7 헤림빌딩 8층이다. 전화번호(02-927-1437/9)와 팩스(02-927-1436)는 이전과 같다.

▶ 대중기계(주)(대표이사 여인성)는 지난 7월 4일 공장 및 본사를 이전했다. 주소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681-60이다. 전화번호는 054-977-7311~3 팩스는 054-977-7314(영업 및 자재), 054-977-7315(경영지원 및 연구소)다.

▶ 푸른아이피에스(대표 양경호)는 최근 사업장을 강서구 등촌동 638-9로 이전했다.

▶ 카피애드(대표 정대웅)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15-14 101호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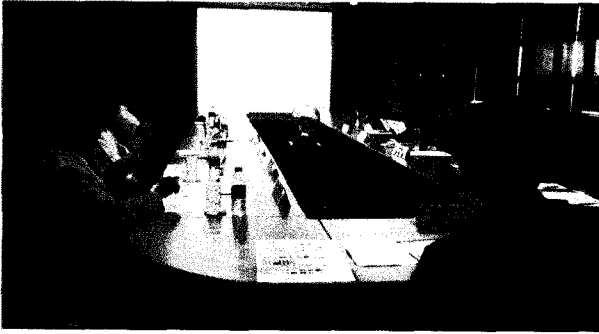
### ◆ 변경

▶ 순환(대표 류순환)이 최근 업체명을 에스앤에스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48-8 기종빌딩별관 2층으로 이전했다.

▶ 상림출력인쇄(대표 양영미)는 최근 업체명을 상림사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12로 이전했다.

▶ (주)우진테크(대표이사 한동훈)는 최근 대표자가 이명순 씨로 변경됐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이사회 개최



(사)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6월 30일 제84차 정기 이사회를 부천소재 (주)흥아기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1년 협회 상반기 업무보고 및 결산자료 보고와 함께 하반기 협회 주요 행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신입회원으로 입회 신청한 (주)정인테크놀로지에 대한 가입 승인을 하였으며, 협회 사무국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인천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하고 분당사무실을 7월내 폐쇄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협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원을 포장기계 및 포장기계관련 제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회원의 경우 부품이나 구성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와 함께 포장관련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변경(안)은 차기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하반기 협회 활동으로는 오는 10월 13일 제13회 포장기계인의 날 및 포장기계대상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 4곳, 국내 1곳 등의 전사회에서 Seoul Pack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 팩컴코리아

G7인증과 PSO인증국내 최초 동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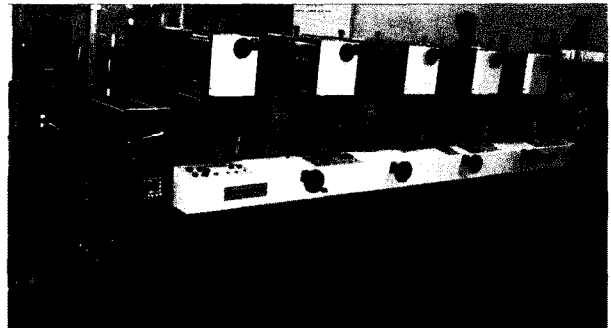


팩컴코리아(주)(대표이사 김경수)는 최근 G7(미국시장중심 인쇄품질 표준화 인증)과 PSO(유럽시장중심 인쇄품질 표준화 인증)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 이는 국내 인쇄업계에서는 최초로 획득한 것이다. 세계 인쇄물 시장에서 G7(미주시장), PSO(유럽시장) 양대 인증은 인쇄품질에 대한 세계적인 품질 검증으로, 미주나 유럽 인쇄물 바이어들에게는 신뢰와 기술력 검증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팩컴코리아의 관계자는 “인쇄품질 국제 인증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인쇄물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팩컴이 제작한 인쇄물은 색상의 일관성과 전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인쇄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한다. 이는 세계 최초의 활자 인쇄술을 문화유산으로 물려받은 한국인의 문화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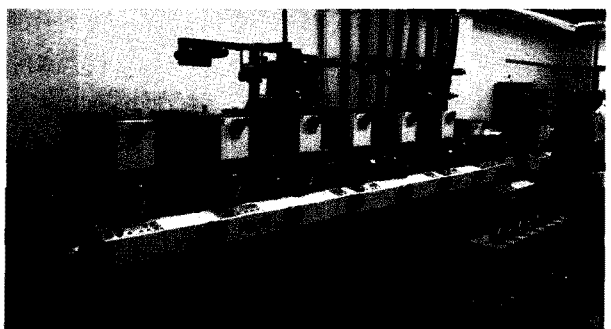
한편 팩컴코리아는 2008년 10월 환경관련 국제인증인 ISO14001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정받고, 동년 12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인증하는 산림보호와 연계된 녹색환경 관련 FSC COC 인증을 획득하여 FSC COC인증용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국제적으로 친환경 경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다. 홈페이지\_www.gopacom.com

▼ 서진프린텍, 매니아-330기종 5도 도입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진프린텍(대표 염혜진)은 최근 엠테크가 공급하고 있는 매니아-330로타리 레터프레스 5도를 도입 기동 중이다. 이번에 도입한 매니아-330로타리 레터프레스 5도는 일제 개별 서브전자메모리를 장착했다. 인쇄길이를 최대 360mm까지 할 수 있으며 독일제 웹가이드방식인 원단과 리외인더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다. 원활한 텐션조절로 원단쓸림방지과 속도도에 의해 잉크량을 0~100%까지 조절할 수 있어 작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셋팅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다음 작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인쇄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어 소량다품종인쇄에 적합하다. 문의 031-427-4168

▼ 염광프린텍, 매니아-330기종 9도 도입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엠프프린텍(대표 이경구)은 최근 엠프테크가 공급하고 있는 매니아-3307기종 9도 간헐식 UV 로타리 라벨인쇄기와 금박 도무송기계를 도입 가동중이다.

매니아-3307기종 9도 간헐식 UV 로타리 라벨인쇄기는 6도 인쇄, 합지장 치 2개, 1도 코팅(부분코팅 가능), 점착면/후면인쇄 1도, 로타리마그네 탁칼과 금박 및 도무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웬만한 일반 작업들은 인쇄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원단부+인쇄+합지+코팅+후면/점착면+로타리칼+리외인더기+피지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엠프프린텍은 산소 완전로타리인쇄기 1대와 평압식씨링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_031-491-5751

### ▼ 한국후지제록스, 침수기계 특별점검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침수 기계 특별 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 서비스 캠페인은 서울, 경기, 강원 등 수해 지역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기, 디지털 인쇄기 등 침수 피해를 입은 한국후지제록스 전기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속한 침수 피해 복구 지원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00명의 한국후지제록스 엔지니어들이 이번 캠페인에 집중했으며, 침수 기계 점검 서비스는 무상으로 실시됐다. 김수영 한국후지제록스 전무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_www.fujixerox.co.kr

### ▼ 일진PMS, 제3회 기술교육 및 세미나 실시

일진PMS(대표 박경재)는 지난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유일레져타운내 연수원에서 인쇄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 앞서 이재수 부사장은 "이번 교육은 고모리 인쇄기 오퍼레이터의 기술향상과 기계가동 및 생산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모리 인쇄기 오퍼레이터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그는 또 "고모리는 고객사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고객자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유지보수교육(기계/전기), 특별강연, 친환경 인쇄실례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튿날에는 향후 인쇄업계 동향 강연, CTP와 종이관련 트러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통/숙식비, 수강료 전액무상으로 진행됐다.

### ▼대정인테리어, 우리그래픽에 프리즘 HYPER 납품



(주)대정인테리어(대표이사 송갑선)은 지난 8월 16일 나노급 초정밀 설계기술로 제작된 UV CTP 시스템 프리즘 HYPER 세트를 서울 총무로에 위치한 출력전문업체인 우리그래픽(대표 김점석)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필름 출력 시스템을 운영해오던 우리그래픽의 김점석 사장은 경쟁력 확보와 원가 절감 등 어려운 시장경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리즘'을 선택한 것에 크게 만족하며, 프리즘의 생산력과 기술력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품된 프리즘 하이퍼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고속 생산 및 HYPER출력으로 저가의 일반 판재와 CTP 전용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주변장치 및 판재 현상기도 전도를 경시보충이 가능한 고가의 최신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프리즘 하이퍼를 납품한 프리즘 UV CTP 총판인 대정인테리어는 안정적인 장비 공급과 신속한 A/S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CMS 관련 G7 엑스퍼트 및 UGRA 자격을 보유한 최상의 토탈 솔루션 업체이다.

대정인테리어는 혁신적인 장비 납품을 통해 업체에 효율적인 원가 절감과 고생산력 확보를 제공해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가격적인 부담을 낮춰 리스 및 은행 저리 할부 금융, 등 다양한 판매조건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성도GL/성도솔루션, 임직원 서비스 관리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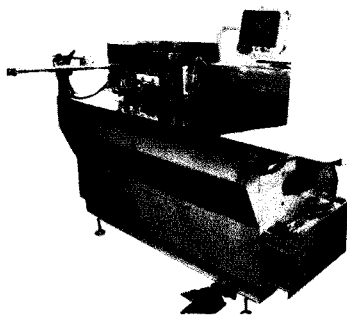
(주)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7월 19일 임직원 서비스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주)성도GL/성도솔루션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Graphic Dream



을 실현하는데 최고의 공헌을 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는 자세로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 후술, 펀칭 및 트윈링 제책기 출시



후술(대표 김주호)은 최근 국내 링제책 기업체인 신흥기계(대표 이신영)에서 개발, 생산한 펀칭 및 트윈링 제책기를 독점, 공급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후술

은 국내외 시장에 출시, 공급하게 되는 신제품은 타공과 트윈링 작업을 자동으로 시간당 1500부를 처리할 수 있으며 터치식 조작판으로 작동이 쉽고, 1인 대량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후술은 소량 다품종의 디지털 인쇄시장에서 트윈링제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일반 노트, 탁상용 캘린더는 물론 벽걸이 캘린더에 이르기까지 한대의 기계로 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도리코, 전 직원 자녀 대상 주니어 섬머 캠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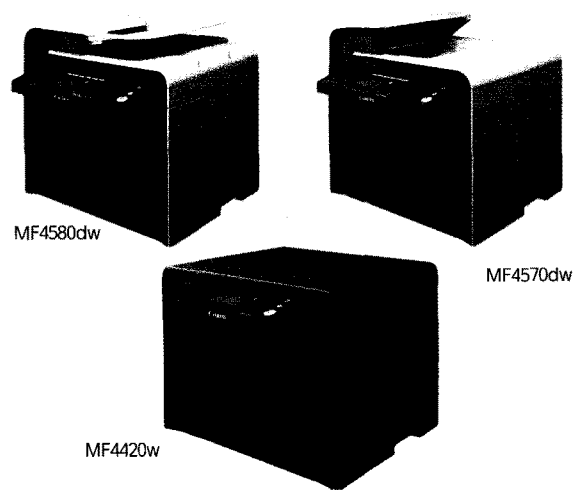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자사 및 관계사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2011 주니어 섬머 캠프(Junior summer camp)'를 8월말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도리코와 관계사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생 총 50명을 선발해 아산 공장 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캠프를 진행했다. 첫 날에는 신도리코 아산 공장의 생산 현장을 견학하며 부모의 회사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 속 소재를 활용해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연기하는 역할극을 진행했다. 또한 퀴즈 대회, 미니 올림픽, 기타 레크레이션 등 공동체 의식 및 자신감 함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신도리코 인재개발실 이창훈부장은 "주니어 섬머 캠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의 행복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풀(Program Pool) 구축을 통해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 www.sindoh.com

▼ 캐논코리아, Wifi 지원되는 복합기 3종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8월 10일 레이저 복합기 시장 볼륨 확대를 위해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소호 사무실에 적합한 무선(Wifi) 흑백 레이저 복합기 MF4580dw, MF4570dw, MF4420w 등 3종(사진 시계방향)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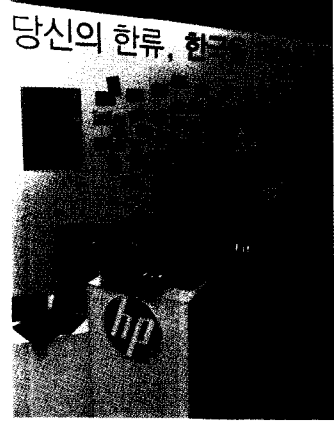
새롭게 선보이는 MF4580dw, MF4570dw, MF4420w는 유·무선(Wifi)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1200dpi 상당의 고해상도, 5라인 유저 인터페이스(UI), A4 기준 최대 분당 25매(MF4580dw, MF4570dw), 23매(MF4420w) 출력, 인쇄·복사·스캔·팩스 등이 가능한 '4 in 1' 제품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 및 제조된 모델이다. 첫 장 인쇄 6초, 복사 속도 9초로 경쟁 제품 대비 빠른 출력(FAST), 3W 이하의 대기 모드로 친환경적(ECO)이며, 5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착해 고객 편의성(USEFUL)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너비 390mm의 업계 최소 슬림 디자인으로 더욱 컴팩트(COMPACT)해진 점이 특징이다.

특히 MF4580dw의 경우, DADF(양면 자동문서 공급장치)가 기본 장착되어 최대 50매의 원고를 적재, 양면 인쇄 및 양면 복사도 가능

해 고객 편의성을 더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무선(Wifi) 네트워크 지원이 가능한 흑백 A4 레이저 복합기 출시로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소호 사무용 고객까지 모두 겨냥한 이번 신제품을 통해 흑백 레이저 복합기 시장의 볼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HP, 한국을 찍어주세요! 이벤트 개최



한국HP(대표 함기호)는 고양문화재단과 ‘당신의 한류, 한국을 찍어주세요!’ 이벤트를 8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한류: 사진작가 6인과 한국을 만나다’의 전시 부대이벤트로 진행됐다. 한국HP는 본 이벤트를 위해 아람미술관에 HP

e프린터를 설치하고 실시간 출력전송으로 출력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완성도, 예술성, 창의성, 진정성, 인기도(네티즌 추천수) 등 카테고리 별로 심사하며 9월 24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작가 특별상(구분창상, 김대수상, 김용호상, 김중만상, 이갑철상)을 수상하는 5명에게는 상장, 전시작가 5인의 특별 사인 도록, 수상 작품액자를 수여한다. 금상(1명)에게는 DSLR카메라, 은상(2명)과 동상(3명)에게는 HP e프린터, 장려상(6명)에게는 영화예매권을 수여한다. 입선(33명)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는 상장 및 네이버 브랜드제품, 전시도록, 관람권 등을 수여한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 그룹 마케팅 사업부 김미진 이사는 “이번 이벤트에서 일반인들이 찍은 멋진 사진들이 HP e프린터를 통해 출력되어 예술작품으로 미술관에 전시될 수 있어 기쁘다. 이벤트 참가자와 전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HP e프린트의 기능의 편리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_ [www.hp.co.kr](http://www.hp.co.kr)

### ▼ 한국HP, e프린트 마케팅 공모전 시상

한국HP(대표 함기호)는 지난 8월 17일 e프린트의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HP e프린트 마케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if하세요 (e프린트 하세요)’를 기획한 프로모션 부분의 박혜영, 심규환 팀이 선정됐다. 대상팀은 HP의 e프린트 기능을 슬로건화 하는 아이디어와 고객의 프린팅 니즈가 있는 모든 곳에 HP e프린트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팀에게는 장학금 500만원 및 상장과 함께 1개월 간의 한

국HP 마케팅부 인턴십 기회가 부여된다.

최우수상은 지면광고와 프로모션 두 팀에게 수여됐다. 지면광고 디자인 최우수상은 ‘언제나 지금을 뽑아보세요’를 기획한 출판작에,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은 ‘HP e프린트, 감동을 더하다’를 기획한 전주현, 김지연 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모든 팀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HP 이미징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대학생들만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 넘치는 PT모습을 보면서 심사에 많은 고심을 했다”며 “수상 여부를 떠나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 HP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홈페이지\_ [www.hp.co.kr](http://www.hp.co.kr)

## >> 편집 디자인

### ▼ 어도비시스템즈 산타누 나라엔 사장 방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이사 지준영)는 어도비시스템즈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직을 역임하고 있는 산타누 나라엔 사장이 최근 방한했다. 산타누 나라엔 사장은 7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를 위한 어도비 시스템즈 비전을 공유했다. 산타누 나라엔 사장은 이번

한국 방한 일정 중에 지준영 대표이사와 함께 각 산업 분야의 주요 국내 고객들을 초청하여 리셉션 및 만찬회를 개최하고 글로벌사업 전략제품 및 기술개발 방향, 그리고 업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http://www.adobe.com/kr)

### ▼ 인큐브테크, e북 솔루션 ‘X프레스9K’ 출시

인큐브테크(대표 이원경)가 인쇄·출판 솔루션인 ‘X프레스9K’를 출시하고 9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퀵(Quark)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외에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기능을 추가했다. 때문에 전자책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험행사는 인큐브테크 서비스 페이지 ‘인큐브타운([www.incubetown.co.kr](http://www.incubetown.co.kr))’에서 신제품 30일 무료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소감을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

다. 다운로드는 원도와 매킨토시 전용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인큐비테크 기획마케팅팀 이규현 팀장은 “인쇄, 출판의 강력한 톨로 써 이미 그 기능을 인정받은 책은 신제품 출시로 전자책 시장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책을 활용해 출판사가 직접 E 펴프로 변환한 문서를 유통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잠재된 출판 시장에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에스문, 페인터일러스트 이미지 무료체험 이벤트**

S-moon Painter Illustration  
 “무료체험·경품” 이벤트  
 2011. 9. 30까지  
 저희 에스문에서는 회원님들과 페인터일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판매용 경품 이미지 <무료 체험>과 <경품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

페인터일러스트브랜드인 에스문(대표 고재은)은 이미지 무료체험 이벤트와 체험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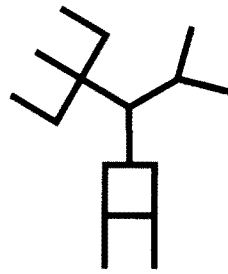
페인터일러스트 이미지무료체험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에스문페인터일러스트 CD [Vol. 10 자유로운 상상③] 40컷 중 1컷을 선택할 수 있다. 1회원 1컷으로 1인쇄물 또는 1사이트에 한한다. 반복사용은 불가능하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에스문 홈페이지(<http://www.smoon.net>)에서 ‘문의상담’란에 콘텐츠명,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에스문페인터일러스트 무료체험 이미지와 체험후기를 ‘문의상담’란에 작성(개인블로그/카페 등에 업로드한 경우 웹주소 포함)하면 시상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1등(1명)에게는 에스문 CD Vol. 10 + 10만 포인트를, 2등(1명)은 싱글이미지 7컷 + 7만 포인트를, 3등(1명)은 싱글이미지 5컷 + 5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1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이 포인트는 향후 에스문 콘텐츠 구매시 사용가능하다. 발표는 오는 10월 1일 에스문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재은 대표는 “페인터일러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 무료체험 이벤트와 이미지 체험후기 경품이벤트를 준비했다. 당사가 개발한 감성적인 에스문페인터일러스트를 보다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11 타이포잔치, 10년만에 재개최**

‘2011 타이포잔치 - 동아시아의 불꽃’이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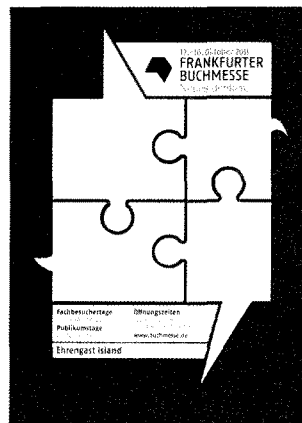
T Y P O G R A P H I C S  
 International Typographic Biennale  
 2011 SEOUL

홍원, 예술의전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01년 타이포그래피 국제 비엔날레로 첫 발을 내딛었던 타이포잔치 이후 10년만에 열리는 전시회다. 한·중·일 3개국 107여 팀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본 전시는 특별전과 본전시로 나뉜다. 특별전은 세 나라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작가 8인의 작품들로 구성되고, 본전시는 신 구세대를 망라하는 세 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부대행사로는 참여작가들의 워크숍과 강연을 통해 각각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세계와 철학을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세계 속의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직위원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출판뉴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오는 10월 개최**



2011 프랑크푸르트도서전 (Frankfurt Book Fair 2011) 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다. 전시품목은 일반도서, 연구서적, 경제서적, 컴퓨터/기술, 건축서적, ART, 전문서적, 아동도서, 필름/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구분된다. 올해 전시는 17만2천sqm 규모

로 총 8홀로 구성되며, 111개 국가 7539개 업체가 참가한다. 2011국제도서전 주관국은 아이슬란드다. 한편 매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5세기 초부터 ‘BUCH MESSE’로 시작되어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이다. 홈페이지 | [www.book-fair.com/en/xfb](http://www.book-fair.com/en/xfb)

▼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제 6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일경제가 주최, 한국전자출판협회, YES24, 웅진씽크빅 주관으로 열린다. 시놉시스 접수는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응모원고 접

수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원고만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로맨스, 무협, 판타지, 추리, SF, 밀리터리, 공포, 역사 등 모든 장르문학 작품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500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만 투고가 가능하다. 응모작품 접수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www.kepa.or.kr) >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이나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 >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에서 업로드하면 된다.

대상 1편에는 상금 2천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2편에는 각 상금 5백만원과 매일경제회장상 / 한국전자출판협회장상, 장려상 9편에는 각 상금 1백만원과 한국전자출판협회장상, mekia상, 유페이퍼상이 주어진다. 특별상 1편에는 상금 3백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며, 특별상은 '청소년부문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작가 중에서만 선정한다.

당선작은 반드시 전자책으로 출간하며, 전자책 제작 및 유통을 위한 복제 및 공중송신권은 3년간 한국전자출판협회에 귀속된다. 당선작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일괄 출간하며, 해당 전자책 판매에 따른 저작권료는 저자에게 지급한다. 단, 종이책, 신문, e-Book, 오디오북 등 기출간된 작품은 당선작에서 제외된다.

문의\_ 한국전자출판협회 (031)955-0041~4 / 예스24 1588-3800

## ▼ 신세계, e북 진출

오프라인 유통 강자 신세계가 전자책 사업에 뛰어든다. 신세계아이앤씨(대표 이상현)는 최근 전자책 플랫폼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네오릭스 콘텐츠를 인수하는 등 연내 전자책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북 플랫폼 개발 컨소시엄에는 마크애니를 주관사로 인프라웨어, E-타래(Tarae), 에이엔케이커뮤니케이션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아울러 e잉크단말기 '누트'로 알려진 네오릭스의 콘텐츠 부문을 인수했다.

네오릭스서 콘텐츠 수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직원 일부도 신세계아이앤씨로 이적했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자책 시장을 먼저 경험한 업체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콘텐츠 서비스 수준은 내부에서 논의중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이 샀던 콘텐츠를 유지하고 이어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연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먼저 시행한 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내년 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새 전자책 브랜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네이밍 전문업체와 손잡고 신규 사업 브랜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 제지뉴스

### ▼ 한솔제지, 친환경실천 가이드북제작에 용지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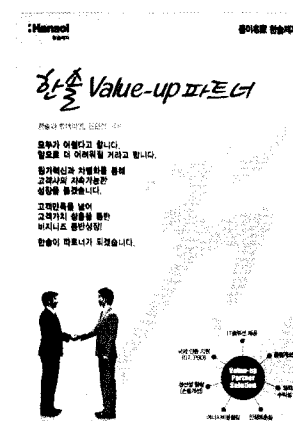


한솔제지는 환경 관련 국제 NGO 단체인 Green Cross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제작하는 친환경 가이드북 제작 및 캠페인에 사용되는 종이 전량을 친환경용지로 협찬했다.

한솔제지는 친환경용지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제지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이번 협찬을 결정했다. 이번 친환경 가이드북은 GR(Good Recycled)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용지인 뉴플러스블루에 공기름 잉크로 인쇄되는 등 최대한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금번 캠페인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가이드북 10만부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환경일기 쓰기 콘테스트를 통해 시상도 실시한다.

### ▼ 한솔제지, 'Value-up파트너' 홍보 이벤트 실시



한솔제지는 'Value-up파트너' (고객가치창출) 활동 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 이벤트를 실시했다. 금번 이벤트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대전화 문자 및 E-mail을 활용, 약 2500명의 고객에게 쿠키를 발송하고, 정답을 회신해 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 이벤트의 경우 E-mail 발송 및 전단 배포 등과 같은 메시지전달 방식 대비 홍보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객 참여도도 높아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발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솔은 'Value-up파트너' 활동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주요 인쇄사 대표 50여명을 장항공장과 아트원 신탄진공장에 초청하는 행사를 실시했고, 주요 인쇄매체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Value-up파트너' 활동은 고객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고객사의 인쇄표준화, 생산성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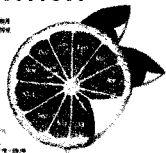
▼ 무림, 창립 55주년 기념식 거행

무림은 지난 7월 26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무림 본사 전 임직원이 강원도 인제 조림지에서 트레킹을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은 이날 응봉산에 모여 인제자연학교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친 트레킹을 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무림P&P 일관화공장의 성공적인 출발과 인도네시아의 조림지 개발 투자로 드디어 무림의 오랜 숙원인 조림-펄프-제지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해”라고 말하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 성장을 관리하고 조울할 수 있는 내부경쟁력이다. 또한 비제지 계열사도 각자의 사업군에서 일등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 대구, 울산의 제지·펄프 3개 공장도 무림오피스웨이, 무림캐피탈 등의 계열사도 별도의 기념식을 갖고 창립 55주년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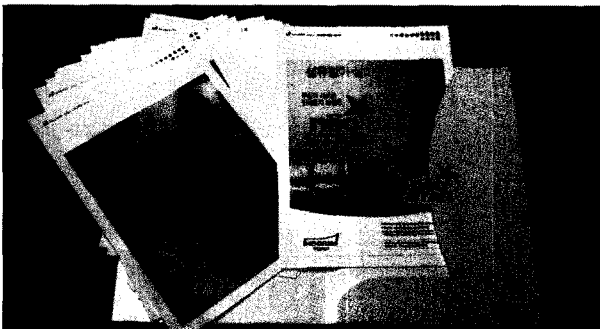
▼ 무림, 2012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 개최

2012 MOORIM CALENDAR DESIGN COMPETITION



무림이 ‘환경친화적인 종이, 다양한 종이의 쓰임’을 주제로 ‘2012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을 개최했다. 대학(원)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던 이번 공모전은 예년과 달리 12개월용으로 공모했다. 주제는 ‘종이의 친환경성과 다양한 쓰임새’였으며, 심사발표는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무림, 네오스타 샘플홀더 제작



무림은 최근 새로운 인쇄용지 브랜드인 네오스타의 주요제품으로 구성된 샘플홀더를 제작했다. 이번 샘플홀더는 일관화공장에서 생산한 네오스타아트, 네오스타노우하이트, 네오스타백상, 네오스타플러스 등 네오스타 브랜드의 주요제품으로 구성했으며, 각

지종에 따른 평량별 인쇄샘플과 백지샘플로 구성했다. 샘플북은 당사 인쇄용지영업팀과 마케팅팀을 통해 인쇄사, 지류유통사, 출판기획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인쇄용지영업팀(02.3485.1682/1561/1664), 마케팅팀(02.3485.1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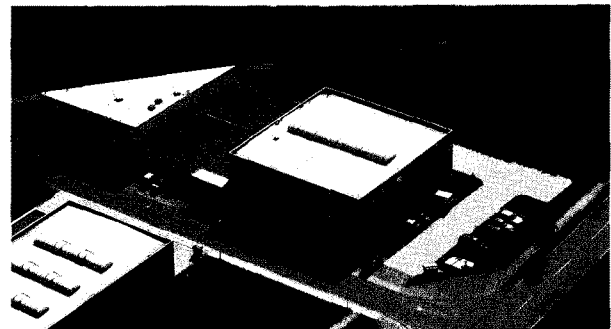
▼ 무림SP, 2011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후원



무림SP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 3400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이번 대회를 후원한다. 무림SP는 대구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경기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는 후원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번 입장권을 구매, 8월 10일 오전 11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조직위 문동후 부위원장과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 해외뉴스

▼ 하이델베르크, CSAT GmbH 인수



하이델베르크사는 지난 7월 29일 독일 기업인 CSAT GmbH사를 인수했다. CSAT GmbH사는 패키징 산업의 재료를 포함하여 디지털 인쇄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전 세계 판매·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번 인수로 패키징 인쇄 부분의 하이델베르크는 디지털 인쇄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고객층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사진 및 drop-on-demand inkjet(DoD) 부분 기술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 부문 이사회 임원인 Stephan Plenz씨는 “CSAT GmbH 인수는 하이델베르크의 디지털 인쇄 전략을 따른다. 광고 인쇄에서의 디지털 인쇄 활동과 함께 패키징 및 라벨 인쇄에서 단통 및 가변 인쇄의 비용 효과적 작업을 위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번 인수는 하이델베르크가 추가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CSAT GmbH사를 계속해서 책임질 전 소유주 Hans Mathea 씨는 “패키징 분야에서 지난 수년간 쌓아온 디지털 인쇄의 종합적 전문성과 국제적 고객층으로 제약업체내 강한 위치를 갖고 있다. 세계적인 하이델베르크 그룹과의 합병은 회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우리 디지털 인쇄 기술의 높은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CSAT 사는 드라이 토너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블리스터 팩과 패키지 인서트의 인라인/ 오프라인 인쇄가 필요한 제약 업계에서 사용되는 1200 dpi 해상도를 갖춘 성공적 DTS 1200 프린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전 CSAT 사는 drop-on-demand 잉크젯 기술을 갖춘 ITS 600을 추가 런칭했으며, 600 dpi 해상도로 고품질 및 가변 라벨 인쇄에 이상적이다.

### ▼ 하이델, 아르메니아에 SM 52 애니칼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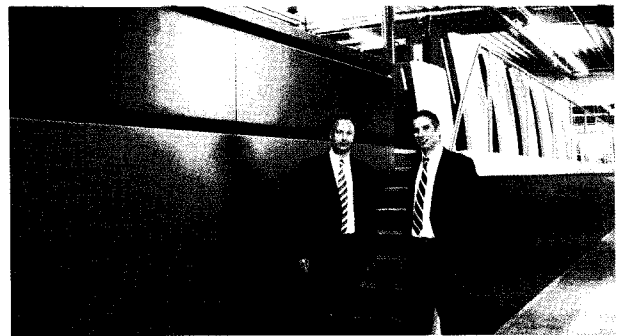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위치한 Amikus-Print사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사의 스피드마스터 SM 52 애니칼라를 도입했다. Amikus-Print사는 고객과 사업 파트너를 위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애니칼라 잉킹 유니트가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위해 코팅 유니트를 포함한 4도 인쇄기로 라이브 데모를 실시했다.

스프라세터 74 CTP 시스템과 함께 인쇄기는 최정상 수준의 작업 가능하다. 애니칼라 기술은 90% 손지 절감과 40% 작업준비시간 절약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높인다. 특히 적은 잉크량의 인쇄 작업이 제약업계에서 흔한데, 전체 작업에서의 칼라 일관성이 보장된다. 또한 스피드마스터 애니칼라 인쇄기는 아르메니아에서 대부분인 단통 인쇄 작업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Amikus-Print사의 사장 Vard Nazeyan 씨는 “향상된 워크플로로 Amikus-Print사의 주 고객층인 제약 회사와 은행들에게 최고 품질과 짧

은 납기를 제공하여 만족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우리의 비즈니스를 끌어 올리고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다. 인쇄 시장에서 새 분야를 개척하고 회사의 추가 발전을 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에는 약 150여 인쇄 회사가 있으며 중고 기계보다는 최신의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Amikus-Print사는 아르메니아에서는 최초로 애니칼라 인쇄기를 도입했다. 2번째 애니칼라 인쇄기는 A2 규격의 새 인쇄기와 함께 다른 인쇄 회사에 설치되었다.

### ▼ Heidenreich 사, 세계 최초 sm XL 145 UV 도입



독일의 상업 및 패키징 인쇄사인 Heidenreich Print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사의 하이브리드 인쇄를 위한 스피드마스터 XL 145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인쇄기는 6도 스피드마스터 XL 145 모델에 코팅 유니트를 장착하여 일반 인쇄에 혹은 배지부의 3개의 UV 인터랙 드라이어와 UV 건조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나 UV 기계로도 가동될 수 있다. Heidenreich Print사는 수년간 다양한 제조사의 인쇄기들을 사용한 후, 2010년 3월 전체 인쇄실을 하이델베르크 사의 기계로 바꾸어 스피드마스터 CD 102-5+L을 2010년 8월에, 스피드마스터 XL 105-6+L UV를 2011년 1월에 설치했다.

Heidenreich Print사의 사장 Hendrik Heidenreich씨는 “이제 우리 회사는 일반 인쇄에서 고급 인쇄물까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델베르크 인쇄기의 사용자 친화성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최고의 품질을 올리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eidenreichPrint사의 마케팅 이사 Rudolf Becker씨는 “스피드마스터 CD 102만으로 첫 6달동안 2천5백만매를 생산했는데, 과거에 그 생산량을 올리는 데는 15개월이 필요했었다. 스피드마스터 XL 105가 이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켰는데 인쇄기 가동 후 첫 4주만에 시간 당 1만6500매의 생산량으로 3백만매의 주문을 처리했다. 그리고 스피드마스터 XL 145는 초대형 규격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며 생산성 향상을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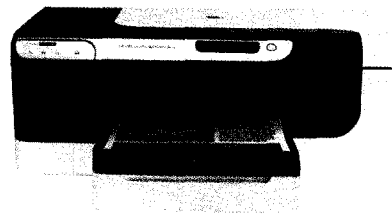
한편 1991년에 설립된 Heidenreich Print 사는 60명의 직원으로 고급 상업 인쇄와 패키징 부분에서 하청 주문을 받고 있다. ‘Sappi European Printer of the Year’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

▼ **퀵, 사모펀드 자금 업고 e북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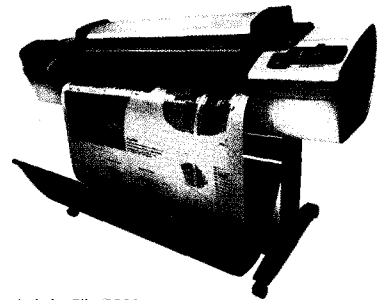
출판-인쇄 솔루션업체 퀵(Quark)이 사모펀드 플래티넘 에퀴티와 지난 8월 10일 인수합병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기존 퀵 핵심시장에 집중하면서 사용자 기반 제품 개발에 전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국내 출시 예정인 퀵X프레스9K를 앞세워 디지털미디어와 연계한 XML 출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국내서 퀵 솔루션을 공급하는 인큐브테크 관계자는 “플래티넘 에퀴티가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퀵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합병을 선택한 것”이라며 “인수 합병으로 인한 서비스나 유통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 **HP, 바이어스 랩 선정 ‘올해의 제품상’ 4개 부문 수상**



바이어스 랩 8000



바이어스 랩 T2300

HP는 지난 7월 29일 세계적인 사무기기 평가 전문가인 ‘바이어스 랩 인터내셔널 (Buyers Laboratory, Inc., 이하: 바이어스 랩)’이 선정하는 2011 올해의 제품상 중 ‘올해의 혁신기술 부문상’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서 HP는 출력 솔루션을 비롯해 3개의 사무용 프린터

및 와이드 포맷 컬러 잉크젯 복합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HP는 최근 디자인젯 제품에 도입된 HP e프린트 & 쉐어 (ePrint & Share) 기술로 ‘올해의 혁신기술부문상’을 수상했다. ‘e프린트 & 쉐어’기능은 웹 상에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웹 솔루션으로 기존 디자인젯 고객들에게 대형 포맷 파일 공유, 접근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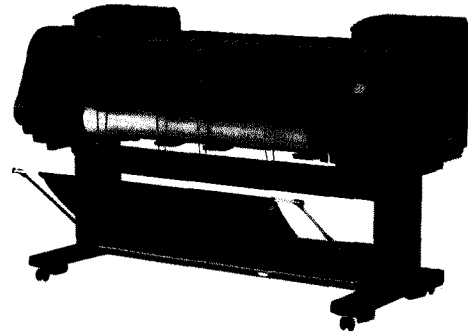
이와 함께 HP는 사무용 잉크젯인 HP 오피스젯 프로 8000 엔터프라이즈 프린터는 ‘올해의 비즈니스 잉크젯 프린터 부문’상을 수상했으며, HP 디자인젯 2개 제품 (HP 디자인젯 T7100 / HP 디자인젯 T2300 포스트스크립트 e-복합기)은 각각 ‘컬러 잉크젯 와이드 포맷 다목적 프린터 부문’상과 ‘컬러 잉크젯 와이드 포맷 복합기 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을 진행한 바이어스 랩 인터내셔널의 지부장 존 도넬리 (John Donnelly)는 “바이어스 랩은 수개월에 걸쳐 엄격하고 공정한 테스트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 수상제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HP는 컬러 잉크

젯 프린터 제품군들의 뛰어난 컬러 그래픽 표현력과 혁신적인 출력 솔루션으로 4개 부문에서 수상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을 총괄하는 임진환 부사장은 “HP는 권위 있는 사무기기 평가기관인 바이어스 랩으로부터 제품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여러 분야의 제품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HP는 모든 이미징 및 프린팅 제품군에서 고객 가치와 제품혁신에 끊임없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캐논USA, 바이어스 랩 선정 2개 부문 수상**



캐논USA는 유니플로우 서버리스 보안 인쇄 솔루션 (uniFLOW Serverless Secure Print solution) 과 iPF8300S 대형 프린터가 미국 사무기기 평가 전문업체인 바이어스 랩 (Buyers Laboratory) 으로부터 우수 문서 보안 솔루션과 우수 컬러 잉크젯 와이드 포맷 제작 포도 프린터 부문 써머 ‘픽’ 어워드 (여름 최우수 제품) 를 수상하였다.

유니플로우 서버리스 보안 인쇄는 프린트 서버를 가지지 않은 고객들에게 “MyPrint Anywhere” 기능성과 접근성 카드 로그인 이 가능하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프린트를 방지해 줌으로써 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MEAP01 탑재된 캐논 imageRUNNER 와 imageRUNNER ADVANCE 장비뿐만 아니라 캐논 콤팩트 복합기 제품에서도 사용가능한 유니플로우 서버리스 보안 인쇄는 고객들이 기존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를 사용해 업무를 볼 수 있고, 네트워크에 캐논 복합기를 걸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배가시켜 준다.

iPF8300S 8색 대형 프린터는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인쇄 품질이라는 최적의 균형을 제공해 캐논의 그래픽 아트, 포토와 생산 시장을 확대시켰다. 캐논 LUCIA EX 안료 잉크로 전문가들은 컬러 혹은 흑백 포토, 산업 디자인과 고품질 포스터 제작과 같은 고품질과 고성능의 인쇄 제작을 만끽할 수 있다. 새로운 8색 컬러 시스템은 이전 S-시리즈 모델보다 약 20% 정도 확대된 색 재현 영역을 커버해 준다. 새로운 안료 물질과 구성을 갖춘 캐논의 LUCIA EX 잉크 세트는 더 큰 새도우 디테일, 더욱 깊은 블랙 밀도와 전체 스퀘어치 저항력 등을 특징으로 한다.

바이어스 랩 대리아 호프만 매니징 에디터는 “캐논이 수상한 ‘픽’ 어워드 (여름 최우수 제품) 는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것으로, 캐논이 문서 이미징 시장이라는 다른 영역에 수년에 걸쳐 제품 라인업을 확대, 고품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 UAE 인쇄사, 디지털 인쇄서 2년 연속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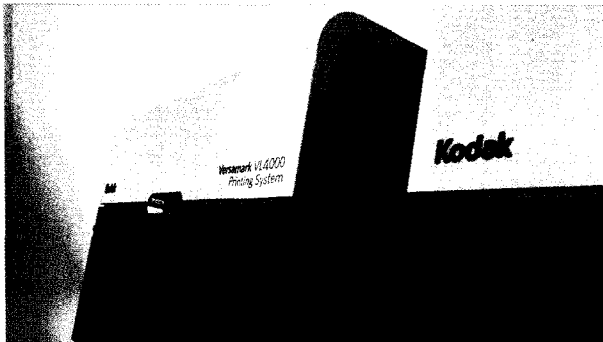
UAE(United Arab Emirate)의 Asiatic Printing Press가 최근 KODAK NEXPRESS SE3000 디지털 프로덕션 컬러 프레스를 도입했다.

책자인쇄를 주로 하고 있는 Asiatic Printing Press의 총괄본부장 비핀 라마찬드란(Vipin Ramachandran)씨는 “최근 책자인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더욱 짧은 시간에 더욱 비용효과적인 제작을 하고 싶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들도 보았지만, KODAK NEXPRESS 이아말로 가장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제품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또한 우리의 KBA 프레스에서 달성된 컬러 품질에 매우 근접하고 있어 제품 일관성에서도 일치했다”라고 덧붙였다.

KODAK NEXPRESS SE3000 설치 이후 Asiatic Printing Press사는 최대 350gsm의 인쇄 능력으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책자인쇄외에도 축하장과 포토티, 주문형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Asiatic Printing Press사는 2년 연속 ROI상승과 회사의 디지털 부문이 매월 450만 UAE 디르함 매출(\$120만)을 내며 2012년 말까지 30%로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비핀씨는 “KODAK NEXPRESS SE3000 프레스는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획득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이 인쇄기는 신규 도서를 인쇄하는데도 이상적이다. 처음에는 소량의 책자인쇄만 디지털인쇄기로 인쇄한 후 대량 주문이 있을 때 KBA 프레스로 대량인쇄를 한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한 부만 인쇄할 수도 있고 수 백만 부를 인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뚝판 보안인쇄사 KODAK VERSAMARK VL4000 도입



유명 보안 인쇄업체 중 하나인 Toppan Security Printing Pte. Ltd는 최근 새 KODAK VERSAMARK VL4000 프린팅 시스템을 도입했다. Toppan Security Printing사는 KODAK VERSAMARK VL4000을 이용해 고객이 비용효과적인 개인맞춤형 풀 컬러 트랜잭션 문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경쟁력을 얻고 있다.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은 보안 청구서부터 복잡한 비밀 은행 통고문까지 풀 컬러 페이지 변동성에 필요한 고품질의 턴 키 잉크젯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프린트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인 세드릭 옹(Cedric Ong)씨는 “Toppan과 손을 잡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닥의 신뢰성과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을 동남아시아 트랜잭션 시장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투자가 Toppan이 고객층과 사업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탄력적이고 강력한 DOD(Drop-on-Demand) 잉크젯 프린팅 플랫폼에 기초하고 있는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은 트랜잭션 문서와 다이렉트 메일같은 복잡한 가변 데이터 인쇄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오프셋 양식이나 마스터 문서를 인쇄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제거한 후 가변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찍는 방식으로, 양식 교체를 통해 제작 프로세스를 능률화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완벽한 4컬러 프로세스의 개인맞춤형 양면 문서를 한 번의 패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KODAK VERSAMARK VL4000 프린팅 시스템은 600x360 dpi의 해상도로 410fpm (125mpm)의 인쇄 속도가 가능하다. EMTEX VIP 서버와 짝을 이루었을 때 고성능 출력 관리 솔루션 KODAK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인쇄 제작 관리,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변환, 리소스 관리, 작업 회계 등을 할 수 있다.

KODAK VERSAMARK VL-Series 프린팅 시스템은 부정사용과 위조품 복제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ODAK VERSAMARK VL4000 프린팅 시스템에 쓰인 코닥의 새로운 보안 잉크를 통해 인쇄사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보안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인쇄된 부분의 진정한 가치를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물건을 보호, 추적, 인증하기 위한 노력의 정진은 위조와 맞서 싸우는 인쇄사와 그들의 클라이언트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안 잉크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구입이 가능하며, 투표용지와 쿠폰 확인, 그 밖에 검증이 필요한 트랜잭션 문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간편하다.

## ▼ 스페인 디지털 신문인쇄업체 KODAK VERSAMARK VL4200 도입

빌링, 마케팅, 트랜스프로모 전문기업인 Acierta Transpromo & Billing Solutions가 신문 인쇄기업인 PressPrint와 협력하여 스페인에서 현지 통합 디지털 신문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 서비스는 마드리드에 있는 Acierta의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 인프라에는 KODAK VERSAMARK VL4200 프린팅 시스템이 두 개 포함되어 있다. 그 시스템 중 하나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KODAK VERSAMARK VL2200 System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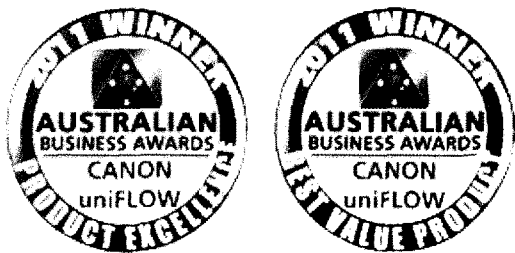
이 통합 상품에 대한 구상은 Acierta, PressPrint, Kodak, ASIP, ITGT-Tajamar (Tajamar Institute of Graphics and Technology), 종이제조사인 Holmen Paper Madrid가 참여한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생겨났다. 이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신문인쇄에 적합하면서도 오프셋 인쇄 품질에 버거는 새로운 잉크와 용지 종량, 파일, 워크플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몇 개의 국제 신문들이 Acierta와 PressPrint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페인 시장에 진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PressPrint의 관리이사인 주안 마누엘 알벨다(Juan Manuel Albelda) 씨는 "Acierta가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사가 이미 KODAK VERSAMARK VL4200 Systems을 가지고 있기도 했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지식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신문사들이 구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문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단순히 신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 이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상품은 신문사들이 훨씬 쉽게 스페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우리는 발행부수 증가를 돕고 맞춤형 같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ierta의 관리 이사 벤자민 카로(Benjamin Caro)씨는 "Acierta와 PressPrint의 결합된 부가가치는 그들을 오로지 인쇄에만 집중하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이다. 이 두 회사는 맞춤형과 구독자 유치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에 두 번째 KODAK VERSAMARK VL4200 System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강력한 프린팅 시스템으로 하룻밤에 약 1만2천부 가량을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VERSAMARK VL4200 System은 분당 410 피트(분당 125 미터)로 작동하며, 해상도는 600 x 360dpi이다. 이 시스템은 신뢰성, 안정성, 속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잉크 리필 시스템은 제작 중에도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일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제작이 빨라지고 품질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 **캐논, 2011 호주 비즈니스 어워드 2개부문 수상**



캐논은 uniFLOW 플랫폼으로 2011 호주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퍼러덕트 엑셀런스(Product Excellence)와 베스트 밸류 프로덕트(Best Value Product)를 수상했다.

NT Ward에서 개발된 uniFLOW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보안 강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기업이 출력 환경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워크플로우 솔루션과 비즈니스 프린트를 제공하는 단일 관리 플랫폼이다. 올해로 6년째인 호주 비즈니스 어워드 프로그램은 각각의 산업에서 비즈니스 우수성, 제품 우수성, 기업의 책임, 지속가능성과 상업적인 성공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조직으로 인정한다. 총 103 수상이 기업은 2011 어워드에 참가한 928개 기관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호주 비즈니스 어워드의 퍼러덕트 엑셀런스(Product Excellence)는 경쟁사로부터 차이점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호주 비즈니스 어워드의 베스트 밸류 프로덕트(Best Value Product)는 경쟁사로부터 차이점을 제공하는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인정한다.

수상에 대해 캐논 비즈니스 이미징 루크 매디슨 수석 제품 매니저는 "이상은 연구 및 개발노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에 상당한 향상을 제공하면서 문서와 관련된 비용과 보안의 확고한 통제력으로 비즈니스를 강화해주는 uniFLOW를 잘 보여준다"며 "입출력 관리의 완벽한 접근과 함께, uniFLOW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 중소기업뉴스

### ▼ 조달청, MRO 공급자 중소기업 확대

조달청은 지난 8월 16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MRO 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의 MRO 시장 잠식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 업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찰 참가자격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업체로 완화된다.

공급권역도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춰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 사 정도가 선정돼 중소기업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도 신설됐다. 적정 납품단가도 확보돼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도 적용된다.

이밖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해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상향조정 추진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과 판매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등 일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사업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세액공제율이 10%에 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위축은 물론, 안정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이 3%에 머물고 있어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농업협동조합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 50% 감면혜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똑같이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 ▼ 경영악화 중소기업에 징수유예 혜택 확대

앞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부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

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의 경우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일선에서 납부연기나 징수유예에 따른 책임문제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징수유예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종전대로 9개월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체납에 따른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했다.

또 세금 환급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한시라도 빨리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소기업 합의 후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만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한다.

동반위는 지난 8월 10일 "현재 230개 신청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첨예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및 협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확한 발표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 회사'로 제한하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 ▼ KJB광주은행

#### 중기 추석 특별은전자금 2천억원 지원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에서 추석을 맞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 특별은전자금 대출 2천억원'을 편성,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의 이번 대출은 추석을 전후해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 및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자금 애로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은전자금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숙박업, 주점업 등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